

종합·해설

꽃왕실 “작품 영구보존 방법 찾아야”

첼시플라워쇼 금광주작가 황지해씨 ‘DMZ’ 인기 “광주일보 보도로 후원자 만나 ... 고향에 큰 감사”

24일 첼시 플라워 쇼(Chelsea Flower Show 2012)가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 왕립병원 일대는 아름답게 꾸며진 수십여개의 정원을 보려는 15만7000여명의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쇼 가든’ 부문에 출품, 금메달을 거머쥔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의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된 화원(Forbidden Garden)’이라는 작품 앞에서 “장엄하고 극적인 정원”이라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작품이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조성하는 ‘여왕 가든’ 바로 옆자리에 조성돼 노출 빈도가 가장 높는데다, BBC 촬영 포스트가 위치해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게 황 작가가 축 설명이다.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과 앤 공주, 에드워드 왕자, 앤드류 왕자, 덴마크 왕세자 내의 등이 직접 DMZ 가든을 찾아와 격려했고 에드워드 왕자는 “쇼 이후 정원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180년 전통의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황 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 씨의 작품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철책에도 불구하고, 60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천혜의 식생이 담긴 원시림으로 소생한 DMZ 정원(208m)을 표현한 것으로, 황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DMZ 정원을 통해 정원의 본질인 자연의 재생력을 표현하면서 긴장과 평화 공존하는 DMZ만의 고요한 시간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강초롱, 대래, 머루 등 DMZ에 자생하는 식물 60여종 3000여 수를 국내에서 가지고가 조성했다. 정원 중심에 8.5m의 경계 초소를 세웠고 초소를 지지하는 다리를 만들고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남북 분단의 상징물인 군사분계선 철책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엮을 수 있는 창으로도 활용된다. 철책에는 60년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덩굴식물을 둘렀다.

철도와 녹슨 기차, 불에 탄 참호와



첼시 플라워 쇼 공식 개막일 하루 전인 21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이 작품 ‘DMZ-’을 감상한 뒤 황작가와 악수하고 있다.

나뭇가지, 땅에 묻힌 대인지뢰, 철도와 군화, 반함 등을 배치해 당시 참했던 전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8000개가 넘는 군번줄에 한국전쟁 시기(1950~1953), 점자나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겨 기념 벤치를 만들어 한국전에 참여했던 영국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등 엄숙한 이야기도 담았다. 갈라진 철책에도 불구하고, 남북을 이어 흐르는 강줄기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작품 제작비 5억여원을 마련

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광주일보의 기사로 문화 불모지인 지역에서 남광건설·호반건설 등 기업들의 메세나를 이끌어내 극적으로 출품이 이뤄져 수상까지 하게 됐다는 점에서 재차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지해 작가는 “광주의 도움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다”면서 “광주의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지역 미술계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분단의 정원 남북 분단의 상징물인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창’인 군사분계선 철책 밑으로 남북을 이어 흐르는 강줄기가 분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황지해작가 제공>

대구·경북 김한길 압승

민주 당대표 경선, 이해찬 3위 ... 누적 김한길 1위

6·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4일 열린 대구·경북지역 대의원 순회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28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누적 투표에서도 1024표를 확보, 972표를 얻은 이해찬 후보를 2위로 밀어내고 선두로 치고 나갔다. 김 후보 측에서는 울산,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4개 권역 경선 결과, 이해찬 후보에 3승 1패를 기록, 전반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내리

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충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신하며, 이 같은 분위기는 당원·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별다른 이변 없이 반영되면서 당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해찬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200표를 얻어 3위에 그침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대세론’이 한 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25일 대전·충남,

26일 경남, 29일 세종·충북 권역 대의원 순회 투표에서 관세를 뒤집고 대세를 다시 살려간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충청 출신인데다 경남에서도 친노 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고향인 추미애 후보는 212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하며 기세를 올렸다. 광주·전남 순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던 강기정 후보는 이날 순회 투표에서 115표를 얻는데 그쳐 6위로 처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준영 지사 대선 출마선언 임박

채널A ‘패도난마’ 출연

5월 들어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권 행보가 가속도를 내면서 출마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중국 차기 권력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만나 정치적 입지를 중앙무대에 과시한 박 지사는 이달 들어 정치행보를 더욱 넓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여수엑스포 개막을 기점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주당 당 대표 경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외교와 정치 행보 병행을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개막 이후 연일 현장을 찾은 박 지사는 엑스포가 국제 행사라는 점을 활용해 외교적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도



네시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자원외교를 펼친데 이어 23일에는 여수 오동재 한옥 호텔에서 왕즈전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부주석 등을 만나 여수엑스포에 중국 정부대표단 참가를 이끌어냈다. 정치 보폭도 더욱 넓혀 23일에는 구 민주당계와 호남 인사를 대표해 친노진영의 중심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24일에는 종합 편성채널인 채널A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패도난마’에 출연해 자신의 평소 정치철학을 소상하게 밝혀 전국적인 지명도 끌어 올리기 위해 주력했다. 박 지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중국 시진핑 부주석과 친해서 (박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한·중관계가 좋아지겠다”는 사회적 질문에도 박 지사가 적극적인 부정을 하지 않는 등 대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였다. 박 지사의 대권 행보가 속도를 더하면서 인터넷에는 벌써부터 여수엑스포 관련 주식들이 박 지사의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나돌고 있다. 하지만 박 지사의 대권 도전 여부는 다음달 15일 전남대 사회대에서 열린 예정인 특별강연이후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지사는 이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자신이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DJ의 적자임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

박지원 “MB 끔찍한 일 당할수도”

민간인 사찰 관계자 처벌·대국민 사과 촉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서 관계자를 처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7~8개월 임기 동안 남은 문제를 모두 털어서 퇴임 후 불행한 대

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저희도 이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불행한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전대가

대박 흥행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전대는 박근혜 박물공장처럼 박물 짝이 내는 새누리당 전대와 차별화된다. 민주당의 역동성과 예측불가능함이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립성 공정성 도덕성에 기초한 전대가 되기를 바라고,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유능한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이를 모험하게 하세요!

에버랜드 키즈커버리

아이들은 본래 동물과 모험에 열광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동물의 세계를 안전하게 재현했어요
아빠 꿈에 올라탈 배정과
사자 코털을 뿜을 용기까지
행거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아 최초 'OK for Kids' 인증
독일 TÜV NORD 주관
친아동 품질안전 및 서비스 인증
www.everland.com



아이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동물 케리터



마음껏 뛰어노는 8개의 테마존



아이들의 휴식공간 - 캄스키

모집관광안내

아시아여행사 | 062-225-3456

※ 세부 일정 및 상품은 해당 관광사도 문의 바랍니다